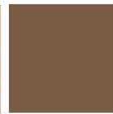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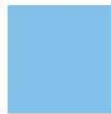




2012년 6월 11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김정훈 ☎ 3276-6230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계량분석 | 노근환 ☎ 3276-6226
파생상품 | 안 혁 ☎ 3276-6272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 투자전략

스페인 구제금융 계획의 시사점과 투자전략

• 경제분석

선진경제 Chartbook: 유럽 대응 기대되는 6월
ECB 경기 부양 의지에 유로화 강세 보인 한 주

• 채권분석

6월 금통위 코멘트: 통화정책의 변곡점

• 이머징마켓 동향

기준금리 인하 불구 중화권 증시 약세
경제지표 악화 우려로 중화권 증시 약세
중국 기준금리 인하, 경기부양 의지 반영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대한항공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SK텔레콤 외 5종목

• 산업/기업분석

통신서비스
고려아연, 네패스, 삼성전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6/01(금)	06/04(월)	06/04(월)	06/05(화)	06/07(목)	06/08(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843.47	1,834.51	1,783.13	1,801.85	1,847.95	1,835.64
	등락폭	-1.39	-8.96	-51.38	18.72	46.10	-12.31
	등락종목	상승(상한)	373(11)	347(4)	95(7)	622(7)	662(5)
		하락(하한)	444(2)	476(2)	775(2)	210(2)	173(2)
	ADR	76.80	75.05	67.93	75.33	77.50	78.26
	이격도	10 일	101.06	100.63	97.81	98.82	101.24
		20 일	98.02	97.96	95.74	97.15	99.96
	투자심리	60	50	50	50	50	50
	거래량 (백만 주)	442	329	387	332	392	374
	거래대금 (십억 원)	4,564	3,473	4,860	3,475	4,525	3,398
코스닥	코스닥지수	471.94	472.13	450.84	456.68	466.18	461.99
	등락폭	2.32	0.19	-21.29	5.84	9.50	-4.19
	등락종목	상승(상한)	427(18)	447(17)	95(23)	672(19)	799(21)
		하락(하한)	507(7)	461(1)	886(5)	266(2)	152(2)
	ADR	81.49	80.22	73.07	79.23	81.60	82.50
	이격도	10 일	102.31	102.26	97.61	98.71	100.66
		20 일	99.50	99.70	95.61	97.16	99.48
	투자심리	60	60	60	60	60	60
	거래량 (백만 주)	537	488	545	671	583	570
	거래대금 (십억 원)	1,523	1,410	1,584	1,559	1,697	1,760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705.6	818.6	730.7	116.8	133.1	269.8	56.5	28.8	125.8	166.9
	매도	1,765.2	813.9	684.9	100.1	133.7	272.0	46.9	18.0	114.1	157.8
	순매수	-59.6	4.7	45.8	16.7	-0.6	-2.2	9.6	10.7	11.7	9.0
	06 월 누계	-769.9	-523.2	507.9	203.7	165.9	109.6	59.2	8.0	-38.4	785.1
	12 년 누계	-3,245.5	6,372.7	-959.4	653.9	1,509.4	-2,592.3	134.7	431.9	-1,096.9	-2,167.8
코스닥	매수	1,674.0	50.9	42.6	4.1	7.0	17.3	2.1	1.0	11.2	11.0
	매도	1,657.8	45.6	61.2	4.3	11.0	26.6	6.9	1.0	11.4	13.9
	순매수	16.2	5.4	-18.6	-0.2	-4.0	-9.3	-4.8	0.0	-0.3	-2.9
	06 월 누계	21.0	-14.7	-5.6	0.7	2.7	-5.5	-2.9	-4.9	4.2	-0.7
	12 년 누계	1,054.1	-33.5	-624.4	-68.8	-0.4	-410.5	-29.2	-55.0	-60.5	-396.3

스페인 구제금융 계획의 시사점과 투자전략

6월 월간 밴드	1,900-2,050pt
2012 연간 밴드	1,650-2,250pt
12MF PER	8.3배
12MF PBR	1.01배
Yield Gap	8.8%p

- ▶ 유럽 해결 프로세스: 1) ECB 탄력적 정책 2) 은행 지원 시 유로존 공동 책임 3) 재정 통합
- ▶ 스페인 지원: 1) 그리스 총선 앞둔 방화벽 2) 예상보다 큰 규모 3) 스페인 정부에게 지원 한계
- ▶ 투자전략: 스페인 지원대책은 단기적으로 유효. KOSPI 상단 1,900pt까지 단기 반등 가능

■ 유럽 문제 해결의 단계

이번주 The Economist에는 현재 유럽의 상황을 빗댄 카툰이 하나 실렸다[그림 1]. 사람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메르켈 독일 총리는 구멍 튜브를 던져주는 대신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 카툰은 현재 유럽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림 1]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치는 메르켈 총리



자료: The Economist, 한국투자증권

현재 독일 정치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1930년대와 매우 유사하다. 1930년대 초반 미국의 중앙은행은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는 금본위제로 인해 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유럽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과도하게 긴축에 집착하고 ECB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밀턴 프리드먼과 안나 슈워츠는 공저 “A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867-1960”에서 잘못된 긴축통화정책이 대공황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리더쉽의 부재’로 인한 통화긴축이 미국 내 경기침체를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심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공황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도 한 편으로는 이해가 된다. [그림 1]의 카툰을 가지고 다시 비유해보면, 애초부터 수영하는 방법을 모두 배운 다음에 유로화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유로화의 태생적 한계이다. 물에 빠진 사람들을 꺼내주면 다시 수영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히 수영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것이 독일의 판단일 수 있다.

통화정책만을 공유하는 유로화가 불완전한 시스템이라는 것은 유로화가 도입되는 당시에도 제기됐던 문제였다. 밀턴 프리드먼은 “유로화가 첫번째 맞는 금융위기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주를 퍼붓기도 했다. 불완전한 유로화가 도입된 이유는 단일통화를 원하는 프랑스와 통일 독일을 원하는 독일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유럽의 문제도 갑자기 어떠한 정책에 의해 한번에 해결되기 보다 점진적인 합의 과정에 따라 전개될 것이다. 우리는 향후 유럽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첫째, ECB의 탄력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스페인을 비롯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른바 ‘대차대조표 침체(Balance sheet recession)’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디레버리징 환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통화정책이 필수적이다.

둘째, 적어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가 아니라 유로존이 공동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유럽에서 지속되고 있는 원칙 중 하나는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및 지원을 개별 국가의 책임하에 진행한다는 것이다. 통화정책 권한이 없는 개별 국가들에게 은행지원의 책임을 온전히 전가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사실은 바로 이러한 정책 방향이 현재의 유럽의 재정위기를 키운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적어도 금융분야에 한해서는 유럽이 좀더 빠른 속도로 통합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EFSF 및 ESM의 자금을 개별 국가가 아닌 문제가 있는 은행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셋째, 궁극적으로는 재정과 정치를 통합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United States of Europe”이 되어야 한다. 마치 18세기 후반 초창기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유럽도 연방국가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유로화의 모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부분과 세금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 독일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로본드의 도입은 세금제도와 법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유럽 문제에 대한 해결은 궁극적으로는 ‘유로본드 도입 및 재정통합’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단·중기적인 대책인 ‘ECB의 정책 변화’와 ‘은행 구제금융에 대한 공동부담 원칙 천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스페인 구제금융 계획의 시사점과 투자전략

지난 주말 스페인에 대한 최대 1,000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방안에 대해 필자는 크게 세 가지의 시사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번 방안의 최대 목표는 다음주 그리스 총선을 앞두고 스페인에 대한 위험 확산의 우려(Contagion risk)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가지 확실히 해둘점은 아직 공식적으로 스페인 정부가 구제금융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로재무장관 공식 성명서에서는 “유로그룹은 스페인 정부가 조만간 공식적인 구제금융 신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요청에 대해 기꺼이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스페인 정부는 민간 컨설팅 기관의 조사가 끝나는 6월 말 이후에나 구제금융을 신청할 계획이었는데 유로존에서는 서둘러서 스페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한 모양새가 되었다.

이것은 다분히 다음주 그리스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로존 국가들이 스페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냄으로써 그리스 총선 결과에 따른 리스크 확산을 사전에 막고자 한 것이다.

둘째, 예상치를 크게 넘어선 지원 규모는 유럽 문제 해결의 전형적인 패턴인 ‘시간끌기 전략’을 보여준다.

IMF의 분석에 따르면 스페인 은행 자본확충에 필요한 자금 규모는 500억 유로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유로존은 최대 1,000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LTRO때도 그랬지만 유럽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자금 지원 규모는 예상치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1] 카툰을 비유해서 설명해보면, 당장 구멍 튜브를 던져주는 않지만 물속에 있는 동안 버틸 수 있는 식량과 식수를 필요치보다 더 많이 공급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필요한 규모보다 많은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러한 대책은 일종의 ‘시간끌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경험으로 보면 이러한 전략의 효과는 단기적으로만 유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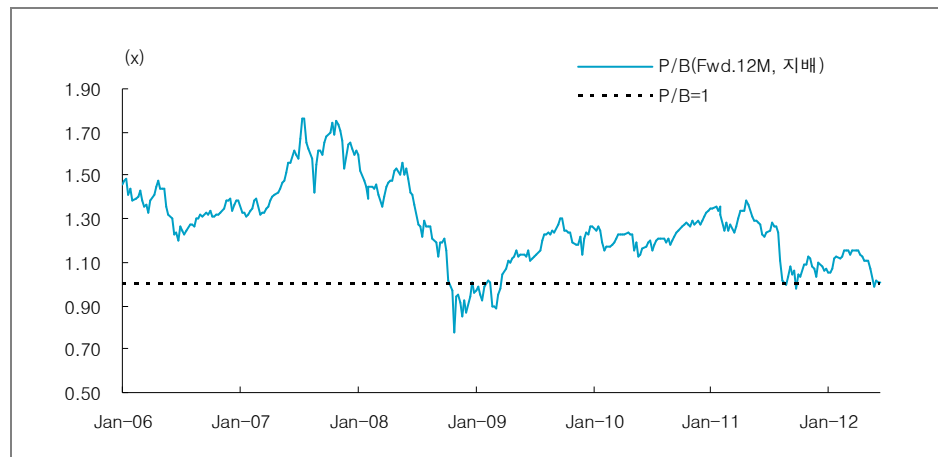
셋째, 자금을 은행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 정부를 통해 지원하게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이번 자금지원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유럽 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가 금융기관 지원에 대해서는 유로존 국가들이 공동으로 개입하는 것인데, 이번 스페인에 대한 지원시에도 은행에 직접 지원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의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리만 시점까지 밸류에이션이 떨어졌던 유럽의 금융주들이 반등하고 있는 점도 단기 반등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리는 6월 월간밴드 상단이자 200일 이평선이 위치한 1,900pt를 반등 타겟으로 삼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적어도 12MF P/B 1배에 대한 신뢰성은 높아졌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12MF P/B 1배에서도 매수에 나서기 어려웠던 이유는 2008~2009년 사례처럼 P/B가 1배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 때문이었다. 비록 이번 스페인에 대한 지원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니나 예상보다 많은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2008년 리만이나 현재의 그리스와 같은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아졌고 이에 따라 12MF P/B 1배의 신뢰성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KOSPI 12MF P/B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선진경제 Chartbook: 유럽 대응 기대되는 6월

- ▶ 미국: QE3 이행 여부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제한적 효과, 부작용 고려
- ▶ 미국 지표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자동차, 기계 업종은 긍정적
- ▶ 유럽: 6월 독일과 여타 유로존 국가 간 입장이 극적 타결, 위기 일단 봉합될 가능성

■ 미국: QE3 이행 여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제한적 효과, 부작용 고려

연초만큼은 아니더라도 3~4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왔던 미국 경기도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20일로 예정돼 있는 FOMC 회의에서는 다음의 이 유로 기대 이상의 부양책이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등의 정책이 확대되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양적완화는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데 효과적이었지만, 지금은 미국 자체 문제보다 유럽 위기에서 파생된 문제들로 인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미국의 노력만으로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추가 양적완화가 실시된다는 가정 하에 유럽 위기가 봉합되면, 폴린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부작용도 문제다. 하반기 경기 반등 시점에서 회복세는 미흡한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을 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추가 양적완화 이행 여부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 미국 지표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자동차, 기계 업종은 긍정적

미국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자동차와 기계, 기업장비 등 일부 업종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이어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업종의 생산 증가세는 양호한 속도로 유지되고 있으며, 재고 부담도 상당히 낮다. 따라서 부진의 근원인 유럽발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수요가 회복되면서 생산 모멘텀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 유럽: 6월 독일과 유로존 국가 간 입장이 극적 타결, 위기 일단 봉합될 듯

방키아 국유화 선언을 전후로 스페인 금융권의 유동성 문제가 제기된 이후 아직 유럽 각국 지도자들은 이렇다 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재정위기국 자생적 해결 도모에 대한 독일의 기본적 입장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6월 그리스 총선 및 정상회담을 전후로 유로존 국가간 입장은 극적 타협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독일 입장에서도 이러한 불확실성은 빨리 해소되기를 원할 것이다. 유럽발 불확실성으로 심리 위축되면서 유로존 외부 수요 모멘텀도 꺾여 독일 경기를 방어해 온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의 위기는 그리스가 아니라 유로존 내 경제 규모 4위의 스페인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민간 금융권 부실을 정부가 떠안아줄 여력이 없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유로존은 재정위기에 이어 금융시스템 위기까지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위기의 전염을 막기 위한 대안이 도출될 것이다. 회원국 정부에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ESM 규정을 조율해야 하는 문제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7월 1일 출범되는 ESM 지원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 상기 보고서는 2012년 6월 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의 요약본입니다.

ECB 경기 부양 의지에 유로화 강세 보인 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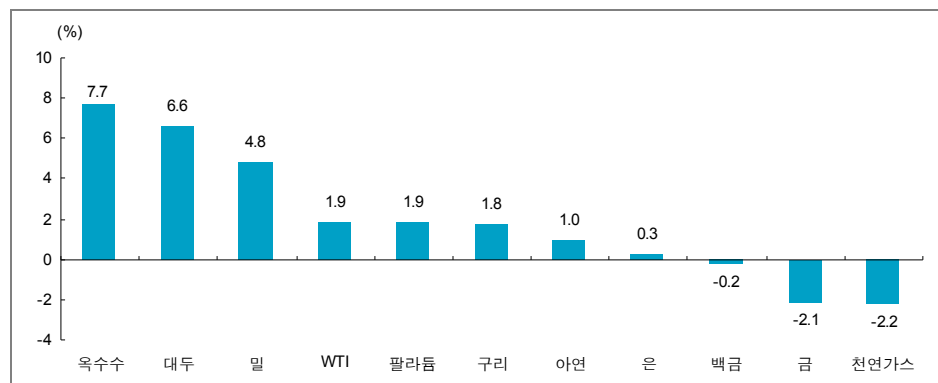
- ▶ 원자재: 유럽중앙은행의 경기부양책 언급 후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 반전
- ▶ 국제금리: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금리 안정 흐름
- ▶ 환율: ECB 통화정책회의 이후 유로화 주요 통화 대비 강세

이번 주 국제금융시장을 움직인 가장 큰 요인은 유럽 경기부양 기대감이었다. 지난 6일 있었던 ECB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1% 동결, 유럽 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 기간 연장 등 유럽 경기 회복을 위한 ECB의 강력한 의지가 확인됐다. 이와 함께 독일은 유럽 차원의 은행연합체 구상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유로존 통합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돼 미국 및 유럽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고 유로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그 결과 원자재 시장은 강세로 돌아섰고 최근 하락세를 지속했던 미국, 독일 등 재정안전국 국채 금리는 상승 반전했으며, 그리스,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국 금리는 하락했다. 한편 벤 버냉키 미국 연준 의장은 ECB 통화정책회의 다음 날, 상하 양원 합동 경제위원회에 참석해 추가 양적완화 시행 가능성은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밝힌 유럽과 달리 미국은 경기 추세를 더 지켜 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 원자재: ECB의 경기부양 의지 확인 후 원자재가격 반등

스페인 은행 방키아의 국유화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한 유럽 은행 위기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유럽중앙은행이 정례 통화정책회의에서 1개월 및 3개월 만기 자금대출 기간 연장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럽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져 최근 하락세를 보였던 주요 원자재가격이 상승 반전했다. 달러화 강세 흐름이 꺾인 것과 향후 경기 회복 기대에 시장 투자심리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미국 연준의 버냉키 의장이 QE3 시행에 대해 이전과 같은 원론적 언급만을 되풀이하자 가격 상승세가 주춤해 주춤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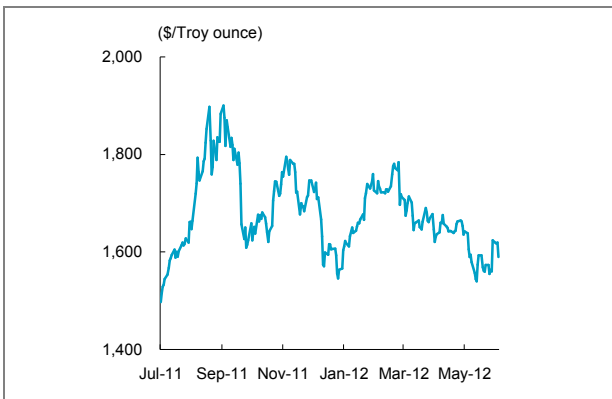
[그림 1] 전주 대비 주요 원자재 가격 변화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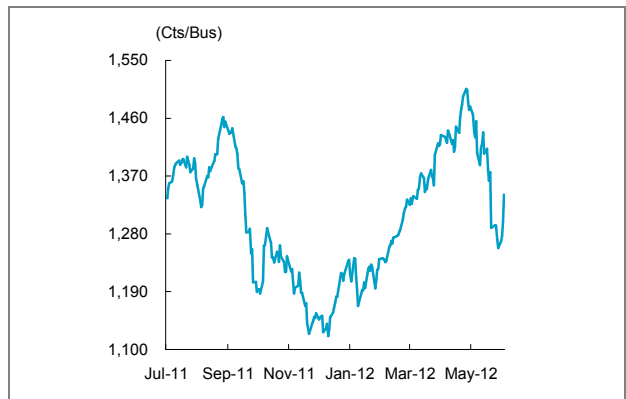
이번 주 타 원자재와 다른 가격 흐름을 보인 것은 금과 천연가스였다. 금 가격은 지난 주 그간의 가격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에 다른 원자재들과 달리 가격이 지지되는 흐름을 보였으나, 금주 버냉키 의장 발언에 대한 실망감에 재하락했다. 천연가스 가격은 예상 외 재고 증가에 하락했다. 미국 주요 지역의 6월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예보에 천연가스 가격은 이번 주 상승 출발했지만 금주 천연가스 재고가 시장이 예상했던 570억 큐빅피트를 상회한 620억 큐빅피트에 달했다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발표가 있는 후 하락 반전했다.

[그림 2] 금 가격



자료: Bloomberg

[그림 3] 옥수수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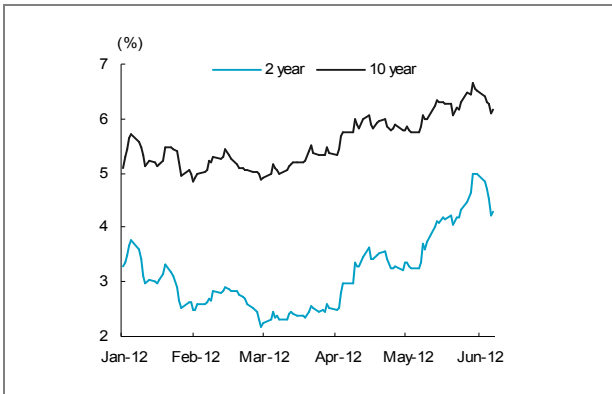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곡물 가격은 큰 상승세를 보였다. 대두 가격은 대두 수출 2위국인 브라질에서 향후 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는 브라질 정부기관의 발표에 상승했다. 또한 대두 수출 3위국인 아르헨티나에서 지난 수요일부터 농업 부문 파업이 진행돼 가격 상승 폭을 확대시켰다. 남미 지역의 기상 이변으로 가뭄이 지속돼 고통을 겪어 온 아르헨티나 농민들이 최근 농지세 인상을 추진해 온 아르헨티나 정부에 반발해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밀의 경우, 미국의 수출 검역량이 호조를 보여 가격 상승세를 지지했다. 옥수수 가격은 중국 기준금리가 인하로 향후 에탄올 수요 증가가 예상돼 급등했다. 에탄올은 의약품, 향수, 합성고무 등의 중간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기초화학 원료이다.

■ 국제금리: 재정안전국 국채 금리 상승 반전, 미국 신용스프레드는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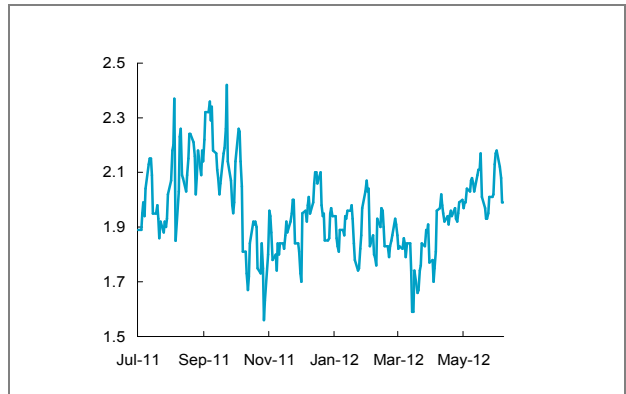
유럽 위기에 대해 유럽중앙은행과 독일이 해결 의지를 보이자 미국과 독일의 국채 금리가 상승 반전했고 스페인과 그리스의 금리가 급락했다. 스페인의 경우,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스페인 국가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세 단계 강등시켜 스페인 지방정부 부채 및 은행권 위기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7일(스페인 현지시간) 있었던 스페인 국채입찰은 예정보다 많은 물량을 발행하며 성공리에 이루어졌다. 국가 신용등급 조정은 선제적이기보다는 여러 이슈들이 있는 후 선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스페인 우려는 이미 시장 내에 팽배해 있어 국채입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독일이 은행연합체 구성을 통해 유로존 내 재정통합을 더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과 ECB가 유로존에 대한 단기 대출 기간 연장을 발표하자 최근 시장에 스페인 위기감을 불어넣은 은행권 우려가 완화돼 국채 입찰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 영향에 스페인 국채 금리는 단·장기물 모두 신용등급 강등 이슈에도 하락했다.

[그림 4] 스페인 국채 금리 (2YR&10YR)



자료: Bloomberg

[그림 5] 미국 신용스프레드 (A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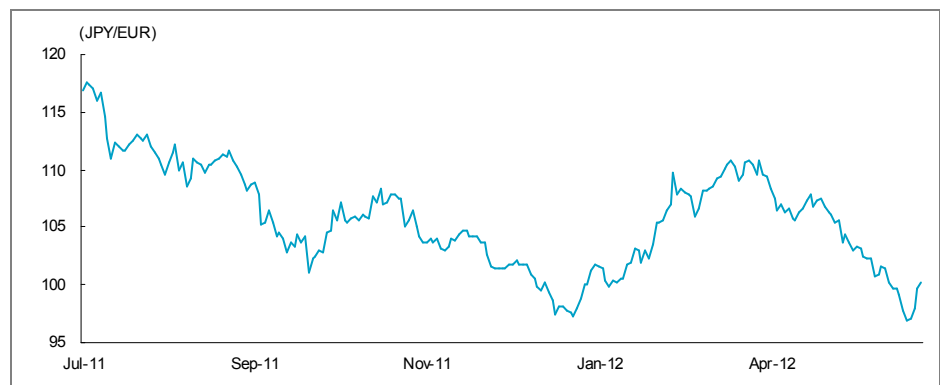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지난 주 스페인 불안감 고조 및 미국 고용지표 악화로 급등했던 미국 신용스프레드는 유럽 우려가 완화되자 전주 대비 20bp 가까이 급락했다. 하지만 ECB 통화정책 회의 이후 버냉키 의장이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자 하락 폭은 감소한 상황이다.

■ 환율: 유로화, 유럽 위기감 진정에 달러화 및 엔화 대비 강세 반전

지난 주 1.23달러 선까지 하락했던 달러/유로 환율은 유럽 위기감이 다소 진정되자 금주 반등에 성공해, 1.26달러 선에 바짝 다가섰다. 97엔까지 밀려났던 엔/유로 환율도 전주말 대비 3.2엔이나 급등하며 100엔 선에 도달했다. 원/달러 환율은 ECB 통화정책회의 이후 1,170선까지 하락했으나 미국 추가 양적완화가 단기간 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자 재상승해, 전주 대비 2.3원 하락에 그친 1,175.4원에 마감했다. 위안/달러 환율은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및 대출금리를 0.25%씩 각각 인하해 중국 경기부양 기대감이 커져 전주 대비 하락 마감했다.

[그림 7] 엔/유로 환율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 상기 보고서는 2012년 6월 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6월 금통위 코멘트: 통화정책의 변곡점

- ▶ 기준금리 3.25%로 12개월 째 동결되었으나
- ▶ 통화정책 스탠스는 이미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금리 상승시마다 분할 매수 바람직

6월 금통위, 기준금리 12개월 연속 동결

6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2개월 연속으로 정책금리가 동결되었다.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었고, 브라질, 인도, 호주, 중국 등이 연이어 금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반면, 높은 가계부채 부담으로 한국은행은 이미 선제적인 금리인하 기회를 놓친 상황이다. 금통위는 글로벌 경기흐름을 좀 더 살피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반기 정책금리 인하로 전망 변경

한국은행이 유독 정책금리 동결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지난 5월 금통위 코멘트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다' 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으로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꺼리고 있다고 진단했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의 심각성 때문에 리플레이션 정책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한은이 경기부진이 지속되더라도 장기 성장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이를 감내하면서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기를 기다릴 것으로 판단했고 연내 정책금리 동결을 전망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한층 높아지면서 당분간 수출이 크게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또한 경기둔화가 어떤 강도로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정을 확대하기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가계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반기 정책금리 동결전망을 1~2차례 인하로 변경한다. 그 시기는 하반기 성장전망이 발표되는 7월에서 머지 않은 3분기 내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금리상승시 분할매수 바람직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도 절대금리가 이미 크게 내려왔다. 단기 딜링 관점에서 채권을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그러나 펀더멘탈 관점에서 채권을 매도하거나 비우고 갈 상황은 더욱 아니라고 판단된다. 유럽 정상회담이나 6월 FOMC의 결과에 따라 일시적인 금리상승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격적인 채권매수보다는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6월 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불구 중화권 증시 약세

- ▶ 중국 인민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 예대금리 변동구간 확대 결정
- ▶ 중국 재정부장, 향후 재정정책의 주요과제는 물가안정, 내수확대, 구조적 감세일 것
- ▶ 중국 승용차연합회, 5월 승용차 판매대수 전월비 2.2%, 전년동월비 16.6% 증가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 사흘 연속
약세. 은행, 비철금속, 철강
업종 큰 폭 하락

상해종합지수가 사흘 연속 내렸다. 직전일 저녁 인민은행이 기습적으로 3년 6개월 만에 첫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나 호재로 작용하지 못했다. 상승세로 개장 후 등락을 반복한 끝에 약세로 마감했다. 주말에 발표되는 중국 5월 경제지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가 중국의 경기하강 압력이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는 시각과 인민은행이 5월 지표 발표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을 것이라는 분석으로 지표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특히 예대금리차 축소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은행주(-2.3%)가 급락하며 지수 약세를 주도했다. 버냉키 연준의장이 경기부양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가운데 중국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10년래 최저 수준까지 둔화됐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비철금속, 철강 등 소재업종도 크게 내렸다. 그 외 목재/가구, 해운, 제약, 음식료, 석탄, 기계, 전자 등의 업종이 약세였다. 반면 미디어, 통신, 증권, 창고, 부동산, 보험주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 홍콩 시장

H지수 상승 출발 후 반락.
본토은행주가 약세 주도
보험 및 자동차주는 강세

홍콩 H지수는 다시 약세로 전환해 1.3% 반락했다. 7일 저녁 중국 중앙은행이 3년반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지수가 상승세로 출발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정부가 상업은행의 예금금리 상한선을 기준금리 대비 1.1배로 인상하면서 시중 실질예금금리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고 금리인하 단행은 5월 중국 실물지표가 크게 악화된 데 따른 조치라는 추측들이 나오면서 지수가 약세로 돌아섰다. 버냉키 연준의장이 3차 양적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한 것과 스페인의 장기 국가신용등급 3단계 강등 소식, 그리스 2차 총선에 대한 우려도 지수 약세의 배경이었다. 예대마진 축소 전망으로 공상은행(-5.4%), 중신은행(-5.0%), 교통은행(-4.5%), 건설은행(-4.4%) 등 본토 은행주가 큰 폭으로 내렸다. 반면 보험과 자동차 관련주는 강세를 나타냈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 분	6/8(금)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281.45	-0.51	-3.88	-3.83	3.73
홍콩 H	9,352.79	-1.27	-2.79	-3.44	-5.87
인도 SENSEX	16,496.59	-0.92	3.33	1.71	6.74
러시아 RTS	1,267.30	-2.81	3.25	2.00	-8.29
브라질 보베스파	54,156.04	3.19	0.67	-0.61	-4.58
베트남 VN	432.90	-0.35	0.96	0.86	23.14
MSCI 이머징마켓	913.18	1.18	2.16	0.76	-0.35

주: 8일 오후 5시 40분 기준

경제지표 악화 우려로 중화권 증시 약세

■ 주간 상해증시 리뷰: 유로존 리스크 완화, 금리인하 불구 지표 불확실성으로 하락 전환

시황: 지난 주 상해종합지수는 2,281p로 주간단위 3.9% 하락해 한 주 만에 다시 약세로 전환했다. 주 초 미국의 고용지표 쇼크와 중국 비제조업PMI 부진 등의 악재로 2.7% 급락했다. 이후 유로존 리스크가 완화되고 글로벌 증시가 반등했으나 중국증시는 보합세에 머물렀다. HSBC 비제조업PMI는 개선된 가운데 상무부가 다양한 조치로 경기하강을 막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5월 하반기 신규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돼 경기급락 우려가 진정됐다. 그러나 미국의 제조업지표 부진 등이 이어지면서 불안 심리가 해소되지 못했고 9~10일 5월 지표 발표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지속됐다. 주 후반 FRB와 ECB의 경기부양 가능성 시사, 은행 자본규제 시행 연기, 민간자본 투자 관련 세금우대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 강세에서 소외됐다. 7일 기준금리가 인하됐으나 지표 불확실성으로 약세로 마감했다.

업종/종목: CSI300 업종기준으로 에너지(-6.9%), 통신(-5.6%), 산업재(-4.7%), 소재(-4.5%), 경기소비재(-4.3%), 금융(-4.1%), IT(-4.1%), 필수소비재(-2.1%), 유틸리티(-0.8%), 헬스케어(-0.6%) 등의 주간 등락률을 기록했다. CSI300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 가운데 연주석탄(-7.8%), 에버브라이트증권(-7.6%), 청화동방(-7.3%), 안휘해라시멘트(-6.9%), 거리전자(-6.6%), 초상은행(-6.4%), 중국인수보험(-6.3%) 등이 큰 폭 하락했다.

■ 주간 홍콩H증시 리뷰: 중국 경기하강 우려 확산, 홍콩 H지수 약세 조정

시황: 지난 주 홍콩 H지수는 1.8% 하락한 10,937p로 마감해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주 초에는 스페인과 그리스 관련 우려,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와 중국 제조업 PMI 등 대내외 악재들이 겹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ECB회의와 버냉키 연준의 장의 의회연설 등에 대한 기대와 낙폭 과대 인식, 중국 신규대출 급증 보도 등에 힘입어 사흘 연속 반등했다. 그러나 중국 경기하강 우려, 스페인발 악재로 반등 폭은 크지 않았다. 주 후반에는 중국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5월 지표에 대한 우려가 강해지면서 1%대의 하락세로 마감했다. 업종별로는 예대마진 축소 우려로 본토 은행주가 크게 하락했고 기계, 시멘트, 석탄 등 산업재 업종이 약세를 주도했다. 반면 유틸리티, 식품 등 경기방어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06월 0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중국 기준금리 인하, 경기부양 의지 반영

■ 7일 저녁 인민은행 기준금리 기습 인하, 3년 6개월 만에 첫 금리 인하

한국시간 7일 저녁 8시,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했다. 지난 2008년 12월 22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각각 27bp 인하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첫 기준금리 인하 조치다. 이로써 6월 8일부터 1년 만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종전의 3.50%와 6.56%에서 3.25%와 6.31%로 하향 조정됐다. 또한 대출금리 하한선도 기준금리의 0.9배에서 0.8배로 내렸다. 인민은행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5월 세 차례 기준율을 인하한 바 있다.

■ 지표 부진, 대외약재 지속, 물가압력 완화가 금리 인하 배경. 기업투자 유도 일환

기준금리가 인하된 배경은 유럽 재정위기 여파가 지속되고 미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중국의 지표가 더 나빠질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물가상승 압력 완화라는 전제조건도 충족됐다. 오는 9~10일에 발표되는 중국의 5월 경제지표도 대체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과 산업생산 등 일부 지표의 경우 직전 수치가 크게 부진했던 데다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소폭의 개선을 보일 수 있겠지만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정자산투자와 통화증가율은 4월에 이어 추가로 둔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5월 PPI는 마이너스폭이 1~2%로 확대되고 CPI는 3.1~3.2% 수준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 인하 강도 예상 상회, 정부 경기부양 의지 반영, 조건부 추가인하 가능성

기습적인 이번 금리 인하의 강도는 예상을 웃돌았다. 대출금리만 18bp 정도로 소폭 인하하거나 대출금리 하한선을 내리는 조치를 예상했으나 중국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드러냈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동시에 인하했고 인하폭도 25bp로 과거 평균 27bp에 근접했다. 그 외 대출금리 하한선을 기준금리의 0.9배에서 0.8배로 낮췄다.

이처럼 중국정부의 8% 성장 확보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과 과거에도 금리조정에 따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 차례 인상 혹은 인하를 단행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3분기 중 한 차례 추가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단 6월 CPI가 3% 이하로 떨어지고 2분기 GDP 성장률이 8%를 예상보다 크게 밀들거나 유럽 이슈와 미국 경제지표 부진이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대출금리만 추가로 소폭 인하하거나 신규프로젝트 관련 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연내 총 2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준율은 단기간 내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무원은 은행 신규 자본규제 방안 시행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단기적으로 은행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빨라진 중국 경기부양 행보로 국내 소비 및 자본재 관련주의 수혜가 기대된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6월 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종목/테마	내 용
메디포스트(078160) ▶94,300(+3.74%)	‘카티스팀’ 시술 활성화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서울병원과 공동 개발한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팀’이 지난 4월 말부터 일반병원 투여 수술을 시작으로 종합병원, 지방병원에서도 실시됨에 따라 시술 활성화 기대감에 강세 - 현재 ‘카티스팀’은 전국 60여 곳의 종합병원과 정형외과전문병원 및 병·의원 등에서 시술이 가능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
매일유업(005990) ▶18,150(+4.61%)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조한 백색우유 매출과 함께 분유시장의 점유율 회복 및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일부 주력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 아울러, 50%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제로투세븐의 국내 매장 확대 및 중국 사업 호조에 따른 실적 증가 전망도 주가에 호재로 작용
케이아이엔엑스(093320) ▶14,200(상한가)	카카오톡 무료통화 서비스 출시 효과에 사흘 연속 상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는 카카오톡의 서버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 전문업체로서 카카오톡의 무료통화 서비스 ‘보이스톡’ 출시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되며 사흘 연속 상한가 - ‘보이스톡’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데이터 통신량이 급증해 동사의 네트워크 사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
유니더스(044480) ▶1,920(+9.40%)	‘슈퍼임질’ 확산 소식에 급등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적으로 ‘슈퍼임질’이 확산되고 있다고 발표하자 이에 따른 대안으로 콘돔이 부각되며 매출 증가 기대감에 급등세 - 동사는 라텍스제품 제조 업체로 콘돔이 전체 매출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콘돔 매출 증가로 2분기 연속 흑자 기록
게임주	모바일 게임 시장 및 신작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확산되며 모바일 게임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연이은 신작 출시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 다날(064260, +5.52%), YNK코리아(023770, +4.77%), 컴투스(078340, +3.75%), 위메이드(112040, +3.13%), NHN(035420, +2.89%) 등 강세
중국 금리 인하 수혜주	중국의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이 3년 6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P 전격 인하함에 따라 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확산되며 수혜 기대감에 강세 - 삼익약기(002450, +8.40%), 쌍방울(102280, +8.31%), 락앤락(115390, +3.36%), 현대제철(004020, +2.75%)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대한항공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대한항공 (003490)	46,300 (+1.2)	45,750 (6/04)	- 외국인의 환승수요 및 미주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선 여객수요의 안정적 성장세 지속 예상 -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2분기 수익 개선 예상 - 여행 성수기 진입과 런던 올림픽 등으로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KG모빌리언스 (046440)	4,660 (+2.6)	4,540 (5/18)	- 국내 1위의 모바일 결제업체로 모바일 기기 확산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로 안정적인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 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실물 고객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영업으로 고성장세 예상
인프라웨어 (041020)	8,910 (-9.5)	9,840 (5/03)	- 모바일 오피스는 높은 편의성과 호환성을 인정받고 있어 향후 판매할 고객사의 주력 모델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며, 스마트폰 저가형에는 에디팅 기능이 빠진 뷰어 모델로 대응 가능하므로 추가적 매출 확대 가능 - 신규 사업으로 오픈 마켓 및 출판사업에 대한 기대 유효.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 메리트 부각 가능성 상
에스엘 (005850)	21,500 (+22.5)	17,550 (4/24)	- 성공적인 고객다변화, LED 램프의 시장 확대. 생산능력 확대 등으로 성장세 가속화 전망 - 안정적인 수주 증가세와 제품믹스 개선 등에 힘입어 수익성 개선 예상 - 전속고객에 대한 높은 매출비중, 높은 경쟁강도 등의 할인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경쟁업체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 및 자산가치 부각 가능성 상존
LG전자 (066570)	67,200 (-12.4)	76,700 (4/17)	- 휴대폰 부문의 경우 상반기에는 1)저가폰 축소, 2)마케팅비용 효율화, 3)비용절감 등을 통해 흑자기조 정착에 초점. 하반기에는 flagship이 기대되는 3G 스마트폰 출시를 통해 수익성 개선 예상. 또한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요인(기술→원가, S/W→H/W) 변화, 선두업체와의 기술적 갭 축소, HTC, Motorola, RIM 등 경쟁업체의 부진 등을 주목할 필요 - TV부문의 경우 일본 TV 업체들의 경쟁력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3D FPR TV를 중심으로 한 제품믹스 개선으로 수익성 개선 예상. PBRI 1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파트론 (091700)	13,800 (-0.7)	13,900 (3/09)	- 삼성전자 갤럭시S2, 갤럭시노트 판매 급증에 따른 카메라 모듈 수요 확대에 의해 동사 매출 성장세 지속 전망 - 진동 모터 및 NFC 안테나 추가 공급 등 디바이스당 ASP 개선에 따른 꾸준한 외형 성장세 유지 예상. 분기 사상 최대 실적 경신 행진, 전방산업 호조에 따른 이익 개선 모멘텀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상승 여력 상존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LG전자, 대한항공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SK텔레콤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2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SK텔레콤 (017670)	122,500 (-1.6)	124,500 (5/24)	16,744	2,013	1,502	21,549	5.7
			- SK플래닛, SK브로드밴드, SK하이닉스 등의 수익 개선으로 자회사 가치 상승 예상 - 가입자당 매출액(ARPU) 증가와 LTE 경쟁 완화로 하반기 수익성 개선 전망 - 역대 최고 수준인 배당 매력도와 역사적 최저 수준인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주목할 필요				
일진디스플레이 (020760)	12,150 (+10.0)	11,050 (5/24)	521	59	56	1,801	6.7
			- 중대형 터치스크린패널 부문에서의 원가 경쟁력과 안정적인 수출 확보로 고객사내 점유율 확대 지속 - 금년 1분기 매출액은 1,180억원(YoY +149%), 영업이익은 130억원(YoY +141%)으로 급증세 시현. 모바일 기기 시장의 급성장세와 고객사의 태블릿 신모델 출시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실적 개선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				
세코닉스 (053450)	11,200 (-8.9)	12,300 (5/10)	130	18	14	2,025	5.5
			- 증설효과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부문에서 큰 폭의 이익 성장 예상. 또한 차량용 카메라 탑재수 증가세(기존 1개에서 7~8개로 증가)와 블랙박스용 수요 증가세로 차량용 카메라 렌즈 부문의 장기 성장성 부각 가능성 - 2분기부터 본격적인 이익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점, 여타 휴대폰 부품업체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는 점 등 감안할 때 추가 상승 여력 상존				
코텍 (052330)	10,400 (-3.7)	10,800 (5/03)	183	23	20	1,530	6.8
			- 카지노 시장 회복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매출처 다변화에 성공. 세계 1위 업체인 Smart(세계 시장점유율 47%)에 LCD 전자칠판 독점 납품. 올해 전자칠판 매출 215억원(+75% YoY) 예상 - 작년에 법인세 감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순이익은 정체되나, 안정적인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넥센타이어 (002350)	20,750 (+19.6)	17,350 (4/17)	1,784	182	140	1,382	15.0
			- 브랜드 이미지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능력 확장으로 장기 성장성 부각 가능성. 원자재 투입단가 하락에 힘입어 1분기 영업이익률은 두 자리수대 회복 예상 - 생산능력 확대로 7월부터 Mitsubishi의 Lancer(중형세단)에 OE를 제공할 계획이며, 미국 및 독일 완성차업체 등으로부터의 수주로 해외 OE(Original Equipment) 판매는 13년부터 빠르게 증가할 전망				
NHN (035420)	249,000 (+11.7)	223,000 (2/21)	2,374	720	533	12,634	19.7
			- 온라인 광고 매출의 고성장과 신작 출시에 따른 게임 부분 매출 성장으로 2012년 매출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할 전망. 모바일에서도 확고하게 높은 검색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모바일 광고와 게임, 일본 포털 사업은 성장동력이 될 전망 - 인터넷 포털과 온라인 게임 규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주주이익 환원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텔레콤, NHN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통신서비스: LG유플러스의 mVoIP 전면 허용은 통신업계 수익에 부정적

■ LG유플러스가 모바일인터넷 전화를 전면 허용

LG유플러스가 7일부터 스마트폰 요금제와 상관없이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NHN의 라인 등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LG유플러스는 약관상 모든 가입자에 mVoIP를 제한해왔는데 전면 허용으로 선회했다. 3G 월 54,000원, LTE 52,000원 요금제 이상 가입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mVoIP 서비스를 허용하는 SK텔레콤, KT와는 대조적이다.

■ 변수는 통화품질, 경쟁사의 대응, 정부의 정책

LG유플러스의 mVoIP 전면 허용이 이동통신시장에 미칠 영향은 mVoIP의 통화품질, 경쟁사의 대응, 정부의 정책 등 변수에 따라 다를 것이다. 현재 통화 품질은 열위이나 기술 진화시 개선될 것이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가 기존 방식으로 부분적 허용을 고수하면 영향은 미미할 것이나 전면적 허용으로 선회하면 과급영향은 클 것이다. 또한 3분기 이동통신업체의 VoLTE(LTE의 유료 인터넷전화이며 통화품질이 우월) 출시를 앞두고 정부가 인터넷전화의 요금, 접속료 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변수다.

■ 이동통신 산업 전반에 부정적

아직 불확실한 변수가 많지만 LG유플러스의 mVoIP 전면 허용은 이동통신 산업에 부정적일 것이다. 1) 음성통화 매출이 줄고, 2) 이용자가 싼 요금제로 낮추어 가입할 유인이 생기고, 3) 망 중립성 논의시 논리가 다소는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요금인하 압력이 줄고, 해외처럼 데이터 요금을 인상하는 계기가 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부정적인 면이 더욱 클 것이다. 특히 이동통신 망을 빌려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는 사업성이 더욱 압박 받을 전망이다.

■ 단기적으로 LGU+가 가입자 유치에 활용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3사 모두 부정적

LG유플러스는 단기적으로 mVoIP 전면 허용에 따라 LTE 가입자 유치에 긍정적일 것이나 장기적으로 경쟁사 대응으로 부정적일 전망이다. SK텔레콤과 KT는 음성통화 매출 감소, 마케팅비용 증가 등으로 장단기 모두 부정적일 것이다.

이동 3사 모두 음성통화 매출액이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액(접속료 제외)에서 19~22%를 차지하고 있다. 음성통화 매출 비중이 05년 34.4%에서 11년에 20%로 하락했고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올해 3월 mVoIP 전면 허용시 이동통신 매출액이 2.36%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무료 애플리케이션 mVoIP 활성화가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보여 영향은 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 2분기 실적 악화, mVoIP 허용 이슈가 주가에 부담

통신주는 5월 이후 1) 역사적 최저 valuation, 2) 7%를 상회하는 배당수익률, 3) 3분기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 증가세 반전 기대로 시장 대비 3%p outperform했다. 하지만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 2분기 실적이 부진하고 mVoIP 허용 이슈가 부각돼 주가상승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6월 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고려아연(010130)

매수(유지)

목표가: 600,000원(유지)

종가(6/5): 360,500원

달라진 펀더멘탈의 힘

■ 2분기 적용 가격, 생각보다 낮지 않다

최근 비철 및 귀금속 가격이 유럽 재정 위기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5월에만 아연 3.6%, 연 3.3%, 동 4.6%, 은 8.9%, 그리고 금이 3.6% 하락했다. 그런데, 2분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고려아연은 전월 평균 가격을 당월에 적용하므로 이미 2분기 가격이 결정되었다. 2분기 가격은 1분기 대비 연 1.7%, 은 2%, 그리고 금은 2.5% 하락에 불과하고 아연과 동은 오히려 각각 0.4%와 2.6% 상승했다. 최근 가격 하락폭이 커 2분기에 적용되는 소재 가격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하락폭은 미미하다. 한편, 2분기 가격은 우리 전망대비 아연 0.5%, 금 0.7%, 그리고 동은 2.1% 하회했고, 연과 은은 각각 2.2%와 3.6% 상회했다.

■ 2분기 영업이익은 우리 예상치와 유사

결정된 소재 가격을 대입한 2분기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기존 전망인 2,351억원과 유사한 2,328억원으로, 전분기대비 16.1% 증가가 예상된다. 우리가 지적한(5월 4일자 '사라진 금을 찾아서' 참고)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31,214oz, 시가 580억원)도 일부 판매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의 2분기 영업이익 예상에는 이 중 12,000oz를 판매한 것으로 가정했다.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579억원으로 전분기대비 19.4% 증가할 전망이다.

■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실적은 안정적인 것

우리는 고려아연의 re-rating을 주장하고 있다. 비철금속과 귀금속, 그리고 기타 금속(주로 희유금속)의 이익 기여도가 각각 38%, 32%, 30%로 잘 배분되어 있어 실적의 안정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경기 침체기에 비철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귀금속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적을 방어할 수 있다. 경기 침체 시에도 실적을 지킬 수 있는 펀더멘탈이 확보된 것이다. 반대로 경기가 회복될 때는 귀금속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더라도 비철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적 상승을 견인한다. 경기 변동에 따른 실적의 변동성이 완화되었다. 분명한 re-rating 요인이다.

■ 목표주가 600,000원, '매수' 투자의견 유지

2분기 소재 가격이 우리 예상과 유사하나 보다 보수적인 실적 전망을 위해 2012년 소재 가격 전망을 하향한다. 2012년 평균 가격을 아연 5.8%, 연 6.1%, 금 3.2%, 은 4.5%, 그리고 동은 4.5% 하향한다. 이에 따라 2012년 지배지분순이익은 8.4%, 12개월 forward EPS는 49,536원에서 46,289원으로 6.6% 감소했다. EPS 하락이 소폭에 불과해 목표 PER 12배를 적용한 목표주가 600,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3,838	684	726	555	31,054	32.2	773	8.9	6.5	1.9	22.4
2011A	5,556	964	975	714	39,868	28.4	1,076	7.6	4.7	1.7	23.1
2012F	5,618	1,001	1,022	765	42,760	7.3	1,111	7.9	5.2	1.5	20.3
2013F	6,164	1,180	1,223	917	51,229	19.8	1,302	6.6	4.2	1.3	20.1
2014F	6,475	1,329	1,379	1,034	57,761	12.8	1,467	5.8	3.1	1.1	18.9

*상기 보고서는 2012년 6월 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네패스(033640)

매수(유지)

목표가: 26,000원(유지)

종가(6/7): 17,650원

스마트폰발 성장 모멘텀 유지

■ 2분기 실적에서 성장 모멘텀 확인 가능할 것

건조한 2분기 실적 모멘텀이 예상된다. 2분기 연결매출 및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0%, 55% 증가한 883억원, 117억원(영업이익률: 13%)을 예상된다. 삼성전자 모바일AP(application processor)향 WLP(wafer level package), DDI(display driver IC) 후공정 사업이 주력인 본사 매출(636억원) 및 영업이익(101억원, 영업이익률 16%)은 전분기 대비 각각 9%, 25% 성장할 것으로 추정한다. 실적 개선의 주요 원인은 1) 삼성전자 모바일AP향 후공정의 높은 가동률 및 캐파(capacity) 증가, 2) Cirrus(Apple에 오디오코덱 공급)향 WLP 공급개시에 따른 8인치 라인 가동률의 상승, 3) 삼성전자 등 주요 고객사향 DDI 후공정 매출 증가 및 모바일향 비중 상승 덕분이다.

■ 스마트폰향 매출이 올해 실적 성장의 최대 견인차

올해 연결 매출 및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34%, 164% 성장할 전망이다. Galaxy S3에 대한 시장의 초기 반응에서 보듯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이 최근 호조를 보이면서 모바일AP향 후공정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시스템LSI 증설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 중이다. 동사는 늘어나는 삼성향 수요에 맞추어 본사 12인치 WLP 캐파(capacity)를 전년 말 10k wpm에서 올해 말 25k wpm까지 증설할 계획이다. 3Q12F부터는 기존 모바일AP외에 PMIC(power management IC)가 삼성전자향 포트폴리오에 추가될 계획이어서, WLP사업은 매출 규모 및 다변화 관점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 연결자회사 실적도 꾸준히 개선되는 중

연결대상 자회사인 네패스PTE(싱가폴 소재 WLP 생산) 및 네패스디스플레이(모바일향 터치패널 양산)의 실적도 꾸준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네패스PTE는 주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Broadcom향 매출이 모바일향 수요 증가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2012F 매출 및 영업이익 각각 26%, 37% 성장 예상).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터치패널(네패스디스플레이)의 수익성은 수율 안정화 및 매출 증가로 하반기에는 BEP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2012F 영업적자 32억원).

■ 최근 주가하락은 매수 기회

투자자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26,000원(12MF PER 12배 적용)을 유지한다. 최근 1달간 동사 주가가 11% 하락하여 실적모멘텀 대비 밸류에이션 접근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단 판단이다(2012F 및 2013F PER 각각 9.8배, 6.8배). 하반기 IT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삼성전자, Apple로 대변되는 모바일향 모멘텀은 상대적으로 견고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동사 실적 및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273	29	19	11	582	(48.5)	53	28.3	7.9	2.5	8.5
2011A	276	19	2	(2)	(106)	NM	46	NM	9.9	2.6	(1.6)
2012F	370	50	50	38	1,746	NM	77	9.8	5.8	2.6	24.5
2013F	452	68	72	54	2,524	44.6	98	6.8	4.2	2.1	27.5
2014F	490	76	83	62	2,906	15.1	110	5.9	3.2	1.6	24.7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2년 6월 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삼성전자(005930)

매수(유지)

목표가: 1,950,000원(유지)

종가(6/7): 1,265,000원

시스템LSI 신규 Capa 투자로 AP와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

■ 화성사업장에 시스템LSI 생산라인 신규 건설을 공시

삼성전자는 6월 7일 화성사업장에 새로운 시스템LSI 생산라인 건설을 위해 총 2.25조원 투자를 공시하였다. 금번 투자를 통해 17라인에 대한 건물 및 크린룸을 준비하여 2013년 중반 이후 시스템LSI 20nm 이하 공정을 양산할 계획이다.

■ NAND Capa 전환 및 신규 Capa 투자로 시스템LSI Capa 확대

삼성전자 시스템LSI는 2012년 하반기 14라인, 2013년 상반기 미국 오스틴 SAS1 등 NAND Capa의 전환을 통해 Capa를 확대하고, 2013년 중반 이후에는 17라인의 양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Capa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스템LSI의 12인치 Capa는 2012년 74%, 2013년 64% 상승할 전망이다.

■ 32nm 양산 가속을 통해 삼성전자와 애플의 신제품향 AP 생산을 가속화

삼성전자는 45nm에 이어 32nm HKMG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32nm 공정에서 애플의 차세대 iPhone5에 채용될 A6 뿐만 아니라 자체 쿼드코어 AP인 엑시노스 4412 등의 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6월부터 갤럭시S3의 판매가 본격화됨에 따라 32nm 공정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분기 20% 수준인 32nm의 비중이 2012년말에는 50%로 상승할 전망이다.

■ 차세대 20nm에서 TSMC와의 본격적인 파운드리 경쟁 전망

현재 32nm/28nm에서 삼성전자의 Capa 운용 우선 순위는 애플향 AP, 삼성전자향 AP 등이고, 파운드리에는 충분한 여유 Capa가 있어야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향후 17라인 등의 Capa 확대 및 차세대 20nm 기술을 통해 파운드리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파운드리 선두업체인 TSMC와의 본격적인 경쟁을 기대한다.

■ Valuation

기존 목표주가 1,950,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2012년 사업부문별 EBITDA에 글로벌 선두 경쟁업체들의 EV/EBITDA multiple을 적용한 Sum of the parts valuation을 통해 산출했고 2012년 EPS의 12.4배, 2012년 말 BPS의 2.6배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154,630	17,297	19,329	15,799	105,992	63.1	28,690	9.0	4.8	1.7	20.4
2011A	165,002	16,250	17,159	13,359	89,073	(16.0)	29,842	11.9	5.2	1.7	14.6
2012F	206,344	28,649	30,330	23,607	156,877	76.1	46,941	8.1	3.9	1.7	21.7
2013F	225,953	32,867	34,422	26,798	177,685	13.3	52,962	7.1	3.4	1.4	20.3
2014F	242,627	35,330	37,067	28,825	191,123	7.6	57,902	6.6	3.2	1.2	18.3

*상기 보고서는 2012년 6월 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5/31(목)	06/01(금)	06/04(월)	06/05(화)	06/07(목)	06/08(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843.47	1,834.51	1,783.13	1,801.85	1,847.95	1,835.64
	등락폭	-1.39	-8.96	-51.38	18.72	46.10	-12.31
	등락종목						
	상승(상한)	373(11)	347(4)	95(7)	622(7)	662(5)	321(9)
	하락(하한)	444(2)	476(2)	775(2)	210(2)	173(2)	478(0)
	ADR	76.80	75.05	67.93	75.33	77.50	78.26
	이격도						
	10 일	101.06	100.63	97.81	98.82	101.24	100.42
	20 일	98.02	97.96	95.74	97.15	99.96	99.60
	투자심리	60	50	50	50	50	50
코스닥	거래량 (백만 주)	442	329	387	332	392	374
	거래대금 (십억 원)	4,564	3,473	4,860	3,475	4,525	3,398
	코스닥지수	471.94	472.13	450.84	456.68	466.18	461.99
	등락폭	2.32	0.19	-21.29	5.84	9.50	-4.19
	등락종목						
	상승(상한)	427(18)	447(17)	95(23)	672(19)	799(21)	353(11)
	하락(하한)	507(7)	461(1)	886(5)	266(2)	152(2)	578(1)
	ADR	81.49	80.22	73.07	79.23	81.60	82.50
	이격도						
	10 일	102.31	102.26	97.61	98.71	100.66	99.62
	20 일	99.50	99.70	95.61	97.16	99.48	98.90
	투자심리	60	60	60	60	60	60
	거래량 (백만 주)	537	488	545	671	583	570
	거래대금 (십억 원)	1,523	1,410	1,584	1,559	1,697	1,760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705.6	818.6	730.7	116.8	133.1	269.8	56.5	28.8	125.8	166.9
	매도	1,765.2	813.9	684.9	100.1	133.7	272.0	46.9	18.0	114.1	157.8
	순매수	-59.6	4.7	45.8	16.7	-0.6	-2.2	9.6	10.7	11.7	9.0
	06 월 누계	-769.9	-523.2	507.9	203.7	165.9	109.6	59.2	8.0	-38.4	785.1
	12 년 누계	-3,245.5	6,372.7	-959.4	653.9	1,509.4	-2,592.3	134.7	431.9	-1,096.9	-2,167.8
코스닥	매수	1,674.0	50.9	42.6	4.1	7.0	17.3	2.1	1.0	11.2	11.0
	매도	1,657.8	45.6	61.2	4.3	11.0	26.6	6.9	1.0	11.4	13.9
	순매수	16.2	5.4	-18.6	-0.2	-4.0	-9.3	-4.8	0.0	-0.3	-2.9
	05 월 누계	21.0	-14.7	-5.6	0.7	2.7	-5.5	-2.9	-4.9	4.2	-0.7
	12 년 누계	1,054.1	-33.5	-624.4	-68.8	-0.4	-410.5	-29.2	-55.0	-60.5	-396.3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철강및금속	22,041	운수장비	-30,030
화학	20,960	건설업	-9,076
서비스업	8,315	유통업	-8,401
LG전자	14,647	현대모비스	-20,174
LG디스플레이	11,079	SK하이닉스	-9,350
POSCO	9,511	삼성전자	-6,409
LG화학	9,189	삼성전기	-5,150
현대제철	8,807	삼성SDI	-4,987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철강및금속	15,214	운수장비	-11,142
서비스업	8,700	보험	-7,084
전기,전자	7,655	통신업	-6,056
LG디스플레이	9,950	삼성전자	-6,637
POSCO	7,108	현대모비스	-5,645
현대제철	5,901	SK텔레콤	-5,040
삼성전기	5,146	현대차	-4,559
현대글로벌	3,934	삼성SDI	-3,752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은행	6,744	운수장비	-2,077
전기,전자	2,461	철강및금속	-1,356
화학	1,580	금융업	-868
외환은행	6,729	현대모비스	-1,780
삼성전자	2,620	한국타이어	-1,623
LG화학	1,787	POSCO	-1,008
KT	1,308	삼성중공업	-886
유한양행	969	KB금융	-862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철강및금속	12,989	운수장비	-11,054
전기,전자	9,321	보험	-5,464
서비스업	4,536	제조업	-4,578
POSCO	9,675	현대모비스	-4,746
LG디스플레이	6,118	KT&G	-4,559
삼성전자	5,614	SK하이닉스	-3,583
SK이노베이션	3,848	삼성화재	-3,132
현대제철	2,862	현대건설	-2,709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철강및금속	41,074	운수장비	-54,622
화학	35,077	보험	-17,319
전기,전자	34,290	건설업	-11,578
LG디스플레이	27,494	현대모비스	-28,060
LG전자	24,865	현대위아	-11,990
POSCO	21,831	현대차	-11,015
호남석유	18,223	SK하이닉스	-10,765
현대제철	14,481	삼성화재	-9,923
LG화학	10,976	KT&G	-9,545
SK이노베이션	7,709	SK텔레콤	-9,247
외환은행	6,429	삼성SDI	-8,256
한국전력	5,731	삼성전자	-6,093
휠라코리아	5,428	삼성물산	-4,916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29,884	철강및금속	-19,510
운수장비	13,395	화학	-19,440
통신업	12,137	기계	-9,009
삼성전자	21,630	LG화학	-22,948
현대차	11,961	POSCO	-15,749
엔씨소프트	10,419	LG디스플레이	-15,051
삼성엔지니어링	9,217	호남석유	-10,466
한국타이어	8,638	두산인프라코어	-9,260
KT&G	8,624	SK하이닉스	-8,408
우리금융	8,249	현대모비스	-8,207
KT	7,669	삼성화재	-8,040
S-Oil	5,701	LG전자	-7,443
NHN	5,206	GS	-6,561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2,413	인터넷	-2,752
오락,문화	876	방송서비스	-1,587
출판,매체복제	500	금속	-1,560
JCE	1,100	다음	-2,752
파라다이스	1,093	CJ오쇼핑	-1,664
씨젠	506	인터플렉스	-1,197
디지텍시스템	460	실리콘웍스	-1,004
에스엠	448	유진테크	-669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오락,문화	988	반도체	-549
기계,장비	432	IT부품	-489
출판,매체복제	319	소프트웨어	-404
파라다이스	988	실리콘웍스	-938
에스엠	509	웹젠	-473
컴투스	508	인프라웨어	-454
심텍	436	하림	-403
게임빌	396	하나투어	-369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기계,장비	223	소프트웨어	-450
제약	160	화학	-186
반도체	153	IT부품	-75
에스에프에이	213	유비벨록스	-271
유진테크	166	솔브레인	-265
씨젠	159	인프라웨어	-92
성우하이텍	67	옵트론텍	-89
하나투어	66	코나아이	-56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사업지원	960	디지털컨텐츠	-1,130
금속	503	방송서비스	-816
화학	308	제약	-673
이녹스	528	CJ오쇼핑	-674
하나투어	511	에스엠	-626
모두투어	449	디지텍시스템	-593
파트론	364	웹젠	-586
컴투스	358	CJ E&M	-563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오락,문화	1,903	인터넷	-3,440
기계,장비	735	제약	-2,703
출판,매체복제	423	소프트웨어	-2,300
파라다이스	2,120	다음	-3,440
네패스	1,302	위메이드	-3,038
컴투스	919	셀트리온	-2,824
이녹스	611	실리콘웍스	-2,191
조이맥스	565	CJ오쇼핑	-1,648
파트론	561	인터플렉스	-1,501
에스엠	543	한국토지신탁	-1,360
네오위즈게임즈	434	웹젠	-1,053
JCE	422	골프존	-1,017
에스에프에이	418	태광	-724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1,402	제약	-2,842
기계,장비	1,187	의료,정밀기기	-1,379
IT부품	1,152	소프트웨어	-629
에스엠	1,426	메디포스트	-2,790
다음	1,401	코메론	-1,277
실리콘웍스	1,237	셀트리온	-643
매일유업	648	컴투스	-578
덕산하이메탈	503	유진테크	-459
에스에프에이	487	가비아	-373
와이즈파워	458	디오텍	-371
성우하이텍	417	에이블씨엔씨	-357
하츠	385	메가스터디	-313
한국토지신탁	331	위메이드	-288

주: 외국인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아모레G	20 일	신세계	9 일
SKC	16 일	세아베스틸	7 일
LG생명과학	11 일	진로	6 일
롯데칠성	10 일	삼성물산	5 일
유한양행	9 일	하이트홀딩스	4 일
POSCO	9 일	조선내화	4 일
동아타이어	9 일	쌍용양회	4 일
동부하이텍	8 일	쌍용차	4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트레이드증권	48 일	한국토지신탁	18 일
동진씨미켄	14 일	모두투어	7 일
성우하이텍	10 일	웹젠	6 일
루멘스	7 일	다산네트웍스	4 일
이오테크닉스	7 일	테라리소스	4 일
덕산하이메탈	7 일	아미노로직스	4 일
파라다이스	6 일	우리이티아이	4 일
에스엠	6 일	차바이오앤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130,575	삼성물산	54,123
LG디스플레이	63,913	엔씨소프트	36,338
한국전력	61,942	현대위아	33,109
POSCO	58,620	우리금융	19,454
KT	57,008	삼성엔지니어링	16,863
현대상선	54,705	GS건설	14,293
삼성생명	47,878	대림산업	12,411
LG전자	42,462	호텔신라	10,335

KOSDAQ			
기	관	외	국 인
성우하이텍	8,130	에스엠	3,962
컴투스	7,978	AP시스템	1,896
파라다이스	7,637	한국토지신탁	1,363
에스엠	6,841	CJ E&M	1,233
평화정공	5,955	평화정공	1,192
JCE	5,253	바이로메드	1,143
게임빌	4,454	인터플렉스	1,062
덕산하이메탈	2,261	에스맥	1,012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서비스업	15,598	29,884	45,482
전기,전자	34,290	5,197	39,487
금융업	2,297	1,721	4,018
SK이노베이션	7,709	5,134	12,843
NHN	3,879	5,206	9,084
S-Oil	672	5,701	6,373
SK	2,715	2,960	5,675
삼성전기	3,696	1,911	5,607
삼성테크윈	557	4,742	5,298
제일모직	1,041	4,132	5,173
신한지주	4,658	261	4,919
SK C&C	3,688	1,207	4,894
현대중공업	358	4,449	4,807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기계,장비	735	1,187	1,922
출판,매체 복제	423	1,402	1,825
컴퓨터서비스	22	617	639
에스엠	543	1,426	1,969
네패스	1,302	64	1,367
에스에프에이	418	487	905
덕산하이메탈	390	503	894
매일유업	4	648	652
조이맥스	565	62	627
이오테크닉스	356	170	526
포스코켄텍	196	294	490
성우하이텍	10	417	427
네오위즈인터넷	220	198	418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물산	11 일	대한제분	20 일
금호전기	11 일	퍼시스	20 일
신세계	9 일	빙그레	16 일
삼영전자	7 일	동아타이어	15 일
LG상사	6 일	현대제철	14 일
고려제강	5 일	STX엔진	13 일
현대백화점	5 일	롯데쇼핑	11 일
한일시멘트	4 일	한진해운홀딩스	8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태웅	9 일	메가스터디	11 일
SDN	5 일	케이디씨	9 일
포스코 ICT	4 일	KH바텍	9 일
원익IPS	4 일	이트레이드증권	6 일
비에이치아이	4 일	아트라스BX	4 일
KCC건설	3 일	한진피앤씨	4 일
CJ오쇼핑	3 일	EG	3 일
STS반도체	3 일	태광	2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물산	-76,554	LG화학	-70,480
호남석유	-54,728	POSCO	-58,285
현대건설	-53,143	현대상선	-56,837
현대위아	-41,061	삼성전자	-43,596
현대모비스	-34,069	LG디스플레이	-33,581
현대중공업	-30,869	기아차	-32,170
SK이노베이션	-30,011	두산인프라코어	-31,083
LG화학	-29,681	호남석유	-27,917

KOSDAQ			
기	관	외	국 인
다음	-7,942	씨젠	-4,497
CJ E&M	-7,777	컴투스	-3,486
셀트리온	-3,794	게임빌	-3,065
골프존	-3,579	네오위즈게임즈	-2,839
하나마이크론	-2,830	지엠피	-2,819
심텍	-2,224	다음	-2,365
STS반도체	-2,179	메디포스트	-2,314
위메이드	-2,060	유진테크	-2,081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보험		-17,319		-5,886 -23,205
섬유, 의복		-708		-253 -961
-		-		- -
현대모비스		-28,060		-8,207 -36,267
SK하이닉스		-10,765		-8,408 -19,173
삼성화재		-9,923		-8,040 -17,963
만도		-25		-4,237 -4,263
OCI		-3,357		-700 -4,058
강원랜드		-2,195		-1,198 -3,393
동부화재		-1,971		-1,234 -3,206
삼성카드		-1,213		-1,494 -2,708
농심		-409		-1,337 -1,746
KB금융		-787		-933 -1,720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제약		-2,703		-2,842 -5,546
소프트웨어		-2,300		-629 -2,929
디지털컨텐츠		-1,888		-294 -2,182
셀트리온		-2,824		-643 -3,467
위메이드		-3,038		-288 -3,325
메디포스트		-102		-2,790 -2,892
인터플렉스		-1,501		-10 -1,511
서울반도체		-695		-146 -841
태광		-724		-52 -776
디오텍		-398		-371 -769
인프라웨어		-489		-110 -599
시그네틱스		-304		-146 -449
하림		-428		-14 -443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5	43,373
현대차	45	10,755
KT&G	111	8,901
LG전자	132	8,873
SK하이닉스	349	7,893
엔씨소프트	22	5,721
한화케미칼	282	5,525
두산인프라코어	255	4,74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4	818
네오위즈게임즈	27	746
서울반도체	29	652
다음	5	486
한라HMS	50	416
메디포스트	4	336
성우하이텍	18	250
네패스	14	250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2,781	3,517,932
POSCO	7,879	2,875,662
LG전자	39,716	2,649,084
OCI	7,635	1,488,858
현대차	4,933	1,183,965
현대중공업	3,014	791,294
삼성전기	6,492	662,155
SK하이닉스	28,859	650,78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1,554	387,050
서울반도체	6,028	132,914
덕산하이메탈	2,225	51,845
원익IPS	6,407	44,019
네오위즈게임즈	1,275	34,168
안랩	275	31,596
차바이오텍	3,569	31,125
OCI머티리얼즈	655	28,540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기계	5,030	전기·가스업	-3,578
운수창고	2,730	전기·전자	-2,817
의약품	738	통신업	-1,959
두산인프라코어	4,016	한국전력	-3,603
STX팬오션	2,480	현대산업	-1,236
한진해운	882	KT	-975
수산중공업	823	대한항공	-894
KB금융	678	대한생명	-875
금호타이어	627	웅진케미칼	-771
알앤엘바이오	533	SK하이닉스	-729
대우조선해양	419	LG디스플레이	-686
넥센타이어	358	대한전선	-670
S-Oil	351	기아차	-64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반도체	957	컴퓨터서비스	-451
제약	929	미분류	-152
전문기술	337	금속	-134
EMLSI	680	포스코 ICT	-498
인포피아	460	성용광전전자	-176
에이블씨앤씨	416	원익IPS	-156
시공테크	220	STS반도체	-142
파라다이스	214	태광	-122
코텍	150	뉴인텍	-90
알에프텍	145	코리아나	-77
메디톡스	142	JCE	-75
피에스케이	138	컴투스	-55
인프라웨어	138	SK브로드밴드	-44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6/01(금)	06/04(월)	06/05(화)	06/07(목)	06/08(금)
외국인	6,372.7	-523.2	-523.2	-235.0	-275.8	-333.2	291.6	4.7
기관계	-959.4	507.9	507.9	66.2	-92.0	370.0	142.2	45.8
(투신)	-2,592.3	109.6	109.6	48.5	-144.1	170.3	41.5	-2.2
(연기금)	-1,111.8	-38.0	-38.0	8.2	-25.3	-18.0	-14.2	10.4
(은행)	431.9	8.0	8.0	10.4	-1.1	-14.9	-5.8	10.7
(보험)	1,509.4	165.9	165.9	-19.4	6.6	121.6	57.7	-0.6
개인	-3,245.5	-769.9	-769.9	123.5	-142.7	-214.7	-475.9	-59.6
기타	-2,167.8	785.1	785.1	45.4	510.5	177.9	42.1	9.0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05/31(목)	06/01(금)	06/04(월)	06/05(화)	06/07(목)
KOSPI	1,682.77	2,051.00	1,825.74	1,843.47	1,834.51	1,783.13	1,801.85	1,847.95
고객예탁금	12072.0	14068.5	17680.2	16876.3	16842.6	17241.3	17091.5	16650.5
(증감액)	2735.7	1996.5	3611.7	160.6	-33.7	398.7	-149.8	-441.0
(회전율)	52.6	51.5	34.2	36.9	29.8	38.0	30.0	38.7
실질예탁금 증감	-292.5	-3502.6	3775.5	-95.9	40.2	392.3	-16.9	-529.8
신용잔고	4359.5	5938.3	4476.3	4199.7	4172.4	4170.5	4162.9	4071.0
미수금	240.2	192.3	187.7	110.1	133.2	140.1	152.8	201.7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05/31(목)	06/01(금)	06/04(월)	06/05(화)	06/07(목)
전체 주식형	98,280	-5,247	270	63	101	-1	97	72
(ex. ETF)		-5,932	227	66	76	33	101	17
국내 주식형	68,878	-3,713	296	62	111	7	97	81
(ex. ETF)		-4,397	254	65	86	41	101	26
해외 주식형	29,403	-1,534	-26	1	-10	-8	0	-9
(ex. ETF)		-1,534	-26	1	-10	-8	0	-9
주식 혼합형	11,244	-806	-24	-1	-2	-2	-5	-14
채권 혼합형	18,618	116	-86	-35	-48	-3	8	-44
채권형	45,740	-800	-28	-201	102	9	-114	-24
MMF	73,350	19,625	7,576	-2,745	468	2,962	4,384	-23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6/04(월)	06/05(화)	06/06(수)	06/07(목)	06/08(금)
한 국	5,752	5,509	-272	-241	-	-	250	1
대 만	-563	1,717	-393	-90	-76	-19	49	-258
인 도	8,279	2,183	-186	-103	-113	30	-	-
인도네시아	281	271	-81	-25	-52	-6	2	-
태국	2,173	96	-64	-	-42	-76	54	-
남아공	254	-851	215	157	8	-5	55	-
필리핀	774	366	-16	-7	1	-10	-0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1년	05/31(목)	06/01(금)	06/04(월)	06/05(화)	06/07(목)	06/08(금)
회사채 (AA-)	4.21	3.92	3.90	3.86	3.88	3.89	3.84
회사채 (BBB-)	10.01	9.54	9.51	9.47	9.49	9.50	9.45
국고채 (3년)	3.34	3.32	3.30	3.26	3.28	3.30	3.25
국고채 (5년)	3.46	3.43	3.39	3.35	3.39	3.42	3.30
국고채 (10년)	3.79	3.69	3.64	3.37	3.62	3.65	3.57
미 국채 (10년)	1.88	1.56	1.45	1.52	1.52	1.52	-
일 국채 (10년)	0.99	0.82	0.82	0.82	0.81	0.83	-
원/달러	1,151.80	1,180.30	1,177.70	1,182.00	1,180.10	1,171.50	1,175.40
원/엔	1,492.00	1,503.00	1,504.00	1,510.00	1,494.00	1,478.00	1,484.00
엔/달러	77.24	78.53	78.35	78.29	79.02	79.28	79.22
달러/유로	1.29	1.23	1.23	1.24	1.24	1.25	1.24
DDR3 1Gb (1333MHz)	0.64	0.70	0.70	0.70	0.70	0.70	-
NAND Flash 16Gb (MLC)	2.81	2.11	2.11	2.08	2.08	2.08	-
CRB 지수	305.30	272.97	268.31	270.00	273.77	274.01	-
LME 지수	3,306.0	3,216.1	3,191.1	3,191.1	3,201.6	3,241.9	-
BDI	1,738	923	904	904	878	872	-
유가 (WTI, 달러/배럴)	98.83	86.53	83.23	83.98	85.02	84.82	-
금 (달러/온스)	1,566.80	1,562.60	1,622.10	1,613.90	1,634.20	1,588.0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최근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KOSPI200	1206월물	이론	마감	평균			증감
6월 1일	242.98	242.95	0.31	-0.03	-0.65	319,506	109,387	1,761
6월 4일	236.30	236.75	0.23	0.45	0.04	317,234	108,265	-1,122
6월 5일	238.79	239.50	0.21	0.71	0.39	233,460	105,341	-2,924
6월 7일	245.51	245.60	0.17	0.09	0.34	244,770	104,281	-1,060
6월 8일	243.69	243.95	0.17	0.26	0.22	257,588	102,446	-1,835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6월 1일	1,256	500	-1,098	-1,061	-15	-151	31	0
6월 4일	8,427	-2,805	-778	698	-924	-19	-278	0
6월 5일	583	1,326	-769	-496	33	71	-523	0
6월 7일	3,054	-1,330	-2,315	-1,244	-557	-21	-501	0
6월 8일	-133	334	-158	2,201	-1,975	-99	-349	0
누적포지션	-3,058	-7,908	14,447	5,720	11,917	39	-3,296	117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6월 1일	773	592	-181	565	479	-86	208	113	-95	7,727	7,060
6월 4일	737	1,409	673	695	792	97	41	617	576	7,552	7,473
6월 5일	624	885	261	611	585	-26	13	301	287	7,459	7,647
6월 7일	616	925	309	570	836	266	46	89	43	7,459	7,678
6월 8일	583	572	-11	500	491	-9	83	8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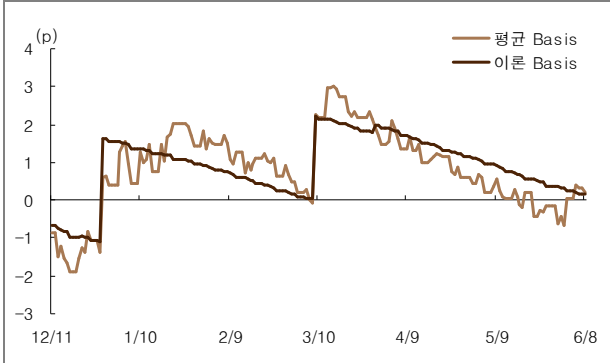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변동성
19.31	10,001	397,301	0.03	257.50	13.40	318	9	5.00
18.15	38,034	906,756	0.06	255.00	11.20	3,962	-634	16.74
18.66	-9,662	1,304,491	0.19	252.50	8.80	11,891	-76	17.27
18.22	13,951	1,608,266	0.42	250.00	6.65	46,264	1,937	19.09
19.51	-2,110	1,227,137	1.04	247.50	4.75	142,871	3,095	19.90
20.51	521	861,076	2.02	245.00	3.25	794,889	-2,078	21.00
21.59	644	116,717	3.40	242.50	2.11	1,134,230	6,563	21.91
22.46	322	62,493	5.10	240.00	1.39	1,131,183	2,150	23.55
27.55	-1,348	8,498	7.45	237.50	0.95	931,939	16,805	25.64
25.78	-680	3,848	9.35	235.00	0.61	760,987	1,610	27.03
28.17	-654	2,621	11.70	232.50	0.36	491,738	12,487	27.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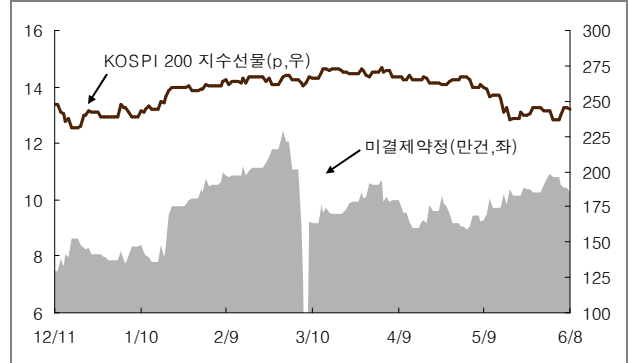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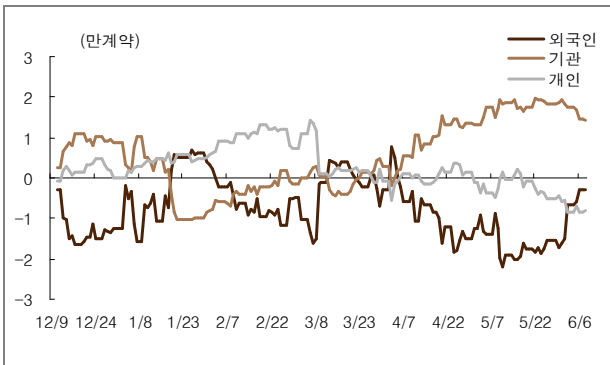
- 평균 Basis: 0.22 (전 거래일 대비 0.12 하락)
- 이론 Basis: 0.17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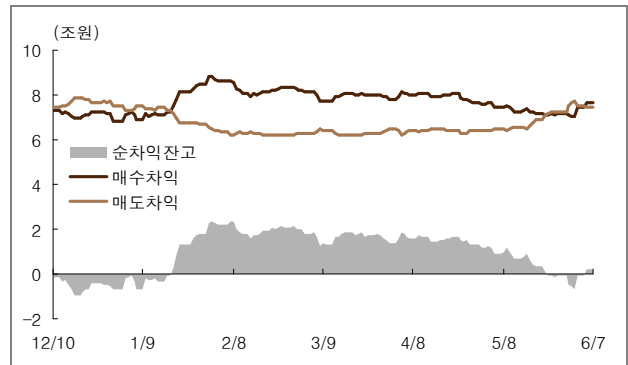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1,835 계약 감소한 102,446 계약
- 선물가격(243.95): 전 거래일 대비 1.65p 하락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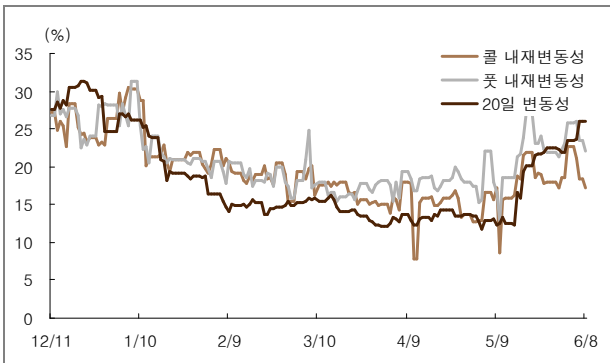
- 외국인: 133 계약 순매도
- 기관: 158 계약 순매도 / 개인: 334 계약 순매수

차익거래 잔고 추이



- 차익거래: 15 억원 순매도
- 비차익거래: 94 억원 순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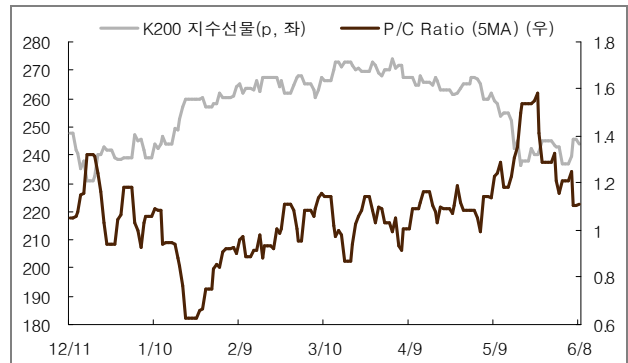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7.3% / 풋 22.1%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25.95%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2년 6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1.11 기록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4	5	6	7	8
韓> 5월 외환보유액 (\$310.87B, n/a, \$316.84B) KOSPI 200 종목 정기변경 유럽> 6월 섀넥스 투자자대회 (-28.9, -30.0, -24.5) 中> (6/3) 5월 PMI 비제조업 (55.2, n/a, 56.1)	美> 5월 ISM 비제조업지수 (53.4, 53.7, 53.5) 유럽> 4월 유로권 소매판매 YoY (-2.5%, -1.1%, -0.2%) 中> 5월 HSBC PMI 서비스 (54.7, n/a, 54.1)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1.3%, n/a, -1.3%) 연준 4월 베이지북 발표 유럽> 1분기 유로권 GDP YoY (-0.1%, 0.0%, 0.0%) ECB 금리 공시 (1.00%, 1.00%, 1.00%)	韓> 1분기 GDP YoY (2.8%, n/a, 2.8%) 4월 통화공급 M2 MoM (0.6%, n/a, 0.0%)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7.7만, 37.8만, 38.3만) 4월 소비자 신용지수 (\$6.52B, \$11.00B, \$21.36B) 유럽> BoE 금리 공시 (0.50%, 0.50%, 0.50%) 중국> 기준금리 0.25%p 인하	韓> 금통위 금리 결정 (3.25%, 3.25%, 3.25%) 美> 4월 무역수지 (-\$50.1B, -\$49.5B, -\$51.8B) 日> 4월 경상수지 YoY (-21.2%, 7.5%, -8.6%)
11	12	13	14	15
韓> 5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n/a, n/a, 2.4%) 유럽> (6/10) 프랑스 1차 총선 中> (6/9) 5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3.0%, 3.2%, 3.4%) (6/9) 5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1.4%, -1.1%, -0.7%) (6/9) 5월 산업생산 YoY (9.6%, 9.8%, 9.3%) (6/9) 5월 소매판매 YoY (13.8%, 14.2%, 14.1%) (6/10) 5월 무역수지 (\$18.70B, \$16.25B, \$18.43B) (6/10) 5월 수출 YoY (15.3%, 7.1%, 4.9%) (6/10) 5월 수입 YoY (12.7%, 5.5%, 0.3%) 日> 5월 통화량 M2 YoY (n/a, 2.5%, 2.6%)	美> 5월 수입물가지수 YoY (n/a, -0.6%, 0.5%) 6월 IBD/TIPP 경기낙관지수 (n/a, n/a, 48.5) 5월 월간 재정수지 (n/a, -\$108.8B, \$59.1B) 中> 5월 신규 위안 대출 (미확정) (n/a, 700.0B, 681.8B) 5월 통화공급 M2 YoY (미확정) (n/a, 12.9%, 12.8%)	韓> 5월 실업률 (n/a, 3.4%, 3.4%)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n/a, n/a, 1.3%) 5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n/a, 1.4%, 1.9%) 유럽> 4월 유로권 산업생산 YoY (n/a, n/a, -2.2%)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n/a, 37.7만) 1분기 경상수지 (n/a, -\$132.1B, \$124.1B) 5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1.9%, 2.3%) 유럽> 5월 유로권 CPI YoY (n/a, 2.4%, 2.4%) 中> 5월 실질 FDI YoY (미확정) (n/a, -1.6%, -0.7%)	韓> 5월 수출물가지수 YoY (n/a, n/a, 2.0%) 5월 수입물가지수 YoY (n/a, n/a, 1.7%) 美> 6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n/a, 14.00, 17.09) 5월 산업생산 MoM (n/a, 0.1%, 1.1%) 6월 미시견대 소비심리평가지수 (n/a, 77.5, 79.3) 유럽> 4월 유로권 무역수지 SA (n/a, n/a, 4.3B) 日> BoJ 정책금리 공시 (n/a, n/a, 0.10%)
18	19	20	21	22
韓> 5월 백화점 매출 YoY (미확정) 5월 할인점 매출 YoY (미확정) 美> 6월 NAHB 주택시장지수 유럽> (6/17) 그리스 2차 총선 (6/17) 프랑스 2차 총선 * G20 정상 회담 (6/18-6/20)	美> 5월 주택건설 착공 MoM 5월 건축허가 MoM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FOMC 금리 결정 日> 5월 수출 YoY 5월 수입 YoY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6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5월 기존주택매매 5월 주택가격지수 MoM 5월 기존주택매매 MoM 5월 경기선행지수 MoM 유럽> 6월 유로권 소비자 기대지수 6월 PMI 제조업	유럽> EU,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中> 6월 HSBC 플래시 PMI 제조업 (미확정)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이전치는 수정 값 미만영분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